

도상봉, 〈정물〉, 1954

/ 송애리

도상봉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서양화가다. 그는 백자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탐닉하며 우아한 정물화를 여럿 남겼다. 대상을 보는 ‘애정의 눈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정물〉은 도상봉(1902-1977) 작가만의 우아한 정물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사용해 그렸으며, 세로 72.7cm 가로 90.9cm의 크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형 회화 작품에 비교하면 크기가 작지만, 도상봉의 작품 중에서는 비교적 대작에 속한다. 화면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의 시선을 뺏는 대상은 오른쪽에 놓인 둥근 백자. 백자 뒤에는 꽃이 가득 담긴 작은 백자가 목기에 올려져 있고, 그 왼쪽으로는 서양식 수병에 색색의 꽃을 꽂아 두었다. 세 대상이 형성하는 삼각형 구도와 사물이 놓인 바닥과 배경의 수평과 수직선이 화면에 차분한 안정감을 부여한다. 백자의 둥근 형태와 목기의 사각 형태, 수직으로 긴 수병과 옆으로 퍼진 백자의 형태가 병치되어 형성되는 리듬감이 경쾌하다. 이 작품은 1987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도상봉 10주기 기념전의 도록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도상봉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서양화가다. 그는 대상을 차분한 색조와 부드러운 필치로 묘사한 아름다운 정물화와 풍경화를 남겼다. 그림 속 사물이 오후의 따뜻한 햇볕을 받는 것처럼 화면 전반에 온화한 분위기가 돌아 그림을 보는 관람객을 편안하게 한다. 그는 극적인 소재나 혁신적인 기법보다는 아카데미한 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한국의 고유한 푸근함과 조형미를 작품에 담고자 했다.

〈정물〉과 마찬가지로 도상봉의 작품에는 백자가 주로 등장한다. 그는 백자에 국화, 코스모스, 작약, 장미, 매화, 개나리, 백일홍, 라일락 등 다양한 꽃을 한가득 꽂거나, 그 주변을 과일이나 여러 기물로 장

식해 놓은 우아한 작품을 제작했다. 물론 백자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도 전한다. 그는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 화단의 소문난 백자 애호가였다. 자신의 호를 ‘도자기의 샘’이라는 뜻의 도천(陶泉)이라고 지었을 정도. 그의 정물화에는 백자와 함께 골동품과 목가구가 등장하는데, 이 또한 그가 지향한 한국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다. 옛 자기나 골동품을 수집하는 미술가는 많았지만, 이러한 취향이 그림의 주된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1972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도상봉 유화전》에 실린 도록에서, 작가가 사물에 갖는 ‘애정의 눈길’이 도 화백 작품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언제나 대할 수 있는 선생 특유의 테마 — 정물만 하더라도 안개꽃이니 라일락이니 백합 같은 꽃들과 백자, 오지그릇, 파이프, 성냥갑 같은 기물들은 아마 그것을 다루는 이의 애정이 없다면 이렇게 풍부한 감정이 흐를 수 있겠는가. 결국 무엇을 어떻게 그리는가이기에 앞서 화가가 사물을 얼마만큼의 애정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그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하나의 대상에도 화가의 애정의 눈길이 있다면 그것은 만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선생의 작품은 말해주고 있다.”¹⁾

도상봉은 1920년 고희동에게 서양화를 배우고,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대 법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곧 미술로 전향하여 1927년에는 일본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에는 경기도, 숙명여대에서 교편을 잡으며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해방 후에는 국전 창설에 가담, 국전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위원장(1955)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술행정가로 활약하며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도상봉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양식으로 수립된 고전주의와 이를 미술교육 이념으로 삼은 아카데미즘의 한국적 정학과 개척에 투철했던 작가도 없을 것이다. 그는 고전주의와 아카데미즘을 서양화의 근본이며 정통으로 보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미술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근대 시민사회의 모럴과 감성을 순화시키고자 했었다. 특히 해방과 함께 새로 태어난 한국 미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한국적 고전주의와 아카데미즘을 수립하고자 했던 그의 이러한 노력은 ‘민족문화 건설의 모태’로 생각했던 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50년대 전후의 한국 화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²⁾

갤러리는 1970년 《도상봉 유화전》으로 작가와 인연을 맺었다. 1977년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그의 작품을 소개했다. 작가 사후, 1987년 10주기 기념전을, 2007년과 2015년에도 개인전을 열어 그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재조명해 왔다. 갤러리현대의 50주년을 기념한

《현대 HYUNDAI 50》전에는 〈정물〉과 함께 1969년에 제작한 풍경화 〈고관설경〉, 1972년작 정물화 〈라일락〉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라일락〉은 1973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작품을 구매한 소장가가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그 이후 처음 공개된다.

- 1) 오광수, 「작가와 작품」, 『도상봉 유화전』 도록, 1972
- 2) 홍선표, 「도상봉의 작가상과 작품성」, 『도상봉 작품집』 도록, 2002